

전남도,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 돕는다

오픈워터대회 여수엑스포해양공원 현장 점검 입장권 판매 지원·관광객 유치·안전관리 추진

전남도가 개막이 39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돕기 위해 오픈워터대회가 열리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을 현장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7월부터 선수촌 식품안전검사와 경기장 운영을 위해 134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광주세계수영선

수권대회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열리는 오픈워터대회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홍보와 입장권 판매 지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안전 관리 등에 나섰다.

이미 1억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한 전남도는 시·군, 기관·단체, 도민의 추가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누리집과 홍보 전광판을 활용해 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대회 기간 중에는 광주 남부대와 여수 엑스포 공원에 전남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해 전남

관광지 소개와 관광 상품을 알릴 방침이다.

전남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는 선수촌 일정(7.5~8.21)에 맞춰 당일 7개 코스와 1박 2일 2개 코스로 운영되며, 나주와 화순, 영광과 함평을 묶어 권역별 관광상품도 운영한다.

'전남의 날'인 8월 7일부터 8일까지는 전남의 주요 국제행사과 박람회, 시·군별 관광자원과 축제, 대표음식 등을 소개하는 전남홍보관도 운영한다.

여수 엑스포경기장 주변에서는 매일 2-3회 버스킹 공연을 열고, 광주 주요 공연장에서는 문화행사를 펼친다. 유관기관 합동

으로 경기장 주변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식음료 및 숙박업소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회기간중에는 수난구조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오픈워터 경기장의 육상과 해상 해양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해양환경 정화선을 배치해 해양 오염과 적조, 해파리 출현 등에도 대비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일반인 대회인 마스터즈대회와 함께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 광주와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FINA "수영대회 중국 물 마셔라" 요구에 광주시 난감

중국 파트너사 생수 40만병 공급

국제수영연맹(FINA)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FINA 공식 파트너인 중국 업체가 제공한 생수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수질 좋은 국산을 두고 굳이 중국산 물을 들여와 마셔야한다는 우려 섞인 여론 때문이다. 대회 조직위는 FINA

측이 모든 마케팅 권리를 보유한 만큼, 선수와 임원 등에게는 중국 업체가 후원하는 생수를 제공하고, 조직위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체 조달한 국산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2일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FINA는 중국 최대 생수 업체 농푸와 후원 계약을 맺고 이번 수영대회에 농푸에서 생산한 생수 40만병(500l 기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물은 선수들이 마시게 된다. 현재 수입 절차를 마치고 수질 검사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수요 조사 결과 필요한 생수가 130만병이라며 나머지 부족한 90만병은 국산 생수를 사용할 방침을 세웠다. 선수와 FINA측 관계자를 제외한 자원봉사 및 조직위 인력들에게는 FINA 파트너사 제공 생수를 공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시와 조직위는 플라스틱병에 담은 수도물인 '빛어울수'를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차량을 경기장, 시청 앞 광장 등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선수와 임원, 자원봉사자, 시민 서포터즈에게 텀블러를 무상으로 제공,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경기장 내에서 FINA 파트너의 권리는 보호해야 하는 것이 조직위의 의무이지만, 경기장 이외의 장소나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조직위 자체 물건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는 이번 대회 생수 공급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난 31일 열린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중순 장흥군수 등이 감성돔 치어 15만미를 장흥 회진항 앞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전남도, 장흥서 '바다의 날' 기념식

전남도는 지난 31일 도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다의 날 기념식'을 정남진 장흥군 회진항에서 가졌다. '바다의 날'은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정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94년부터

5월 3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정부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매년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정중순 장흥군

수, 김성일 도 농수산위 위원장, 광대수·사순문·김복실·윤명희·신익준 도의원, 장흥군의회 의장 및 도내 기관·단체장과 해양수산인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기념식은 해양수산발전 유공자 표창, 바다환경 낭독, 감성돔 어린 고기 15만미 방류, 회진항 수중 정화활동 및 해변공원 쓰레기 수거활동 등 다채롭게 진행됐

다. 한편 전남도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전남바다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고흥 녹동항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지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에서 매일 셋째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고속버스 상행선 '간이정류장' 검토

광산구 산월 IC~광산 IC 구간

고속버스 상행선 이용객 편의를 위해 광주시 광산구에 간이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지난 31일 호남고속도로 고속버스 상행선 이용객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승차할 수 있도록 광산구 산월 아이씨(IC)~광산 아이씨(IC) 구간에 간이정류장 설치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시민소통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지역민의 고속버스 상행선 간이정류장 설치 요구는 2004년부터 10여 년 넘게 제기된 숙원사항이다.

지난 2004년 광산구 첨단·신창·수완지구 주민들이 서울~광주 고속버스 하

행선과 상행선에 함께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2005년 말 하행선만 광산구 비아동에 설치됐다. 이후 시민들은 상행선 간이정류장 설치를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광산구 첨단·신창·수완지구 등 상행선 주변 주택지구 확장으로 이용객이 큰폭으로 늘어난데다, 상행선을 이용하는 경우 도심 광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왔다가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4차 현장간담회는 광산구 첨단2동 행복복지센터에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금호터미널,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금호·삼화·중앙·한일고속, 광주시 담당부서, 광산구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종갓집서 증가 문화 체험하세요

전남문화관광재단 중·고교 대상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 추진

전남지역 종갓집에서 증가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생겼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다음달부터 추진하는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에선 전남 지역 8개 증가에서 머무르며 전해오는 고유 증가 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증가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전남 증가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승·발전시키기 위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사)전남도증가회와 공동으로

해남 해남읍씨 어촌증가, 구례 문화류씨 귀안와증가, 나주 밀양박씨 청재류씨, 담양 장흥고씨 학봉증가, 담양 홍주송씨 이요남증가, 영광 전주이씨 양도공증가, 장흥 장흥위씨 위정렬증가, 보성 광주이씨 원암증가 등 8개 증가가 참여, 7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아 7개 중·고교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 학생들은 7-8월중 남도 증가문화를 느끼고 지역 관광명소 및 역사 유적지 탐방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문의는 전남문화관광재단(061-980-5862)으로 하면 된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여수산단 대기오염 점점 환경감시단 신속 구성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직급 상향

전남도가 도시 안전을 위해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배출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상설 '환경감시단'을 구성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직급을 기존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일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한전공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래 개정안을 6월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 전남도는 동부지역본부에 환경안전관리과를 신설한다. 현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팀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시료채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상사·지속적

환경감시를 위해 상설 전담기구인 환경안전관리과와 산하에 환경관리팀·환경감시팀·환경수사팀을 조직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6일 적발된 여수산단 환경오염 허위조작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환경안전관리과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체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전공대설립지원단은 기존 과 체제에서 전담 과 체제로 격상한다. 2022년 3월 한전공대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현안 대응, 중앙정부 협력·교섭 창구 역할, 지역개발 기획·조정 총괄 등을 위해 최소 3급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